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비밀의 언어

1주차	일시	10월 8일 15 : 00 학술정보관 4F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형유림(2394016)	○
		김하경(2394010)	○
		손채민(2394032)	○
조수빈(2394025)	○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진도페이지:	~ p.138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교수님, 손채민, 조수빈, 김하경, 형유림]</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내용 작성</p> <p>챕터 2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토론 진행.</p> <p>손채민: 암호의 역사가 기원전 5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은 줄 처음 알았다.</p> <p>김하경: 꽤 오래 전부터 암호화가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걸 알고 전문가들을 우대해 준 것이 신기하다.</p> <p>조수빈: 영어 알파벳을 암호화할 때, 평문에서 q와 u가 쓰이는 규칙과 빈도가 매우 특징적이므로 더 효과적인 암호화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p> <p>형유림: 부자(父子)가 만든 암호가 너무나 강력하여 그 둘이 사망한 후 몇 백 년 동안이나 그 암호를 풀 수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p>		

	일시	10월 31일 11 : 00 상상베이스 303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형유림(2394016)	O
		김하경(2394010)	O
		손재민(2394032)	O
	조수빈(2394025)	O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진도페이지:	p.139.~ p.262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손재민, 조수빈, 형유림, 김하경]</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챗터 4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토론 진행. 형유림: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그 기술력에 따라 정보 탈취의 위험성이 커지고 그에 대한 보안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하경: 암호 해독가를 '비밀 병기'로 표현한 것이 재밌다. 그만큼 암호 해독이 전쟁에서 큰 기여를 한 것 같다. 손재민: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감청한 독일군의 통신만 1억 단어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해독에 실패했다면 독일에 큰 이점이 되었을 것이다. 조수빈: 오늘날에도 통신 그 자체의 보안 또한 중요하지만 감청됐더라도 쉽게 그 내용을 알기 어렵도록 암호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p>	

	일시	11월 12일 15 : 00 학술정보관 4F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형유림(2394016)	O
		김하경(2394010)	O
		손채민(2394032)	O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진도페이지: p.263 ~ p.406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교수님, 조수빈, 김하경, 형유림, 손채민]</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내용 작성</p> <p>챕터 6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토론 진행.</p> <p>김하경: 앨런 튜링의 친우였던 모컴 또한 뛰어난 과학도였던 것 같은데 결핵으로 일찍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했을 것 같아 아쉽다.</p> <p>손채민: 선형문자를 해독한 사람들이 언어 자체에도 재능이 있었다는 연관성이 신기하다. 언어의 패턴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재능이 있었던 것 같다.</p> <p>형유림: 나바호어처럼 사어에 가까운 언어를 이용해 암호를 만든 것이 정말 대단하고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p> <p>조수빈: 전공수업에서 배운 기본 암호화 기법과 모듈러 연산을 보니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p>	

	일시	11월 19일 15 : 00 학술정보관 4F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형유림(2394016)	O
		김하경(2394010)	O
		손채민(2394032)	O
	조수빈(2394025)	O	
진도	도서명: 비밀의 언어	진도페이지:	p.407 ~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형유림, 교수님, 조수빈, 손채민, 김하경]</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챗터 8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토론 진행. 조수빈: 원서 출간 당시인 1999년에 작가가 묘사한 미래 인터넷 인프라 대부분이 현재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손채민: RSA 암호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필 짐머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전공 시간에 배운 PGP인 줄 몰랐다. 형유림: 일반인의 암호화와 정부의 정보 통제 & 감청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지금도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 미 정부는 통화 등을 감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란 기억이 있다. 김하경: 양자 암호에 대한 마지막 챗터에서 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인상적이다. 비록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끝까지 완독해서 기쁘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형유림 (2394016)	<p>암호학이라는 분야는 접근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장벽이 있고, 암호라는 것 자체가 본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p> <p>그러나 <비밀의 언어>를 읽은 후에 그 생각을 살짝 수정하게 되었다. 암호는 매우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기술의 발전과 함께해왔으며 그렇기에 중요한 대목들에서 큰 활약을 해왔다. 암호에 대해 얘기하면서 꼭 숫자와 퍼즐만을 언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이다.</p> <p>특히 이 책에서 암호들과 그 암호들이 엮인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묘사했으며, 자칫 복잡하고 지루해져서 책을 덮고 싶어질 때쯤 적절하게 역사 얘기를 곁들여서 더욱 재미있는 독서가 된 것 같다.</p> <p>또한 암호와 관련해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전공 수업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이 긴 시간을 지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니 전공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다.</p> <p>책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어진 양자 컴퓨터는 아직 소수의 전문가만이 접하고 다루고 있지만 기술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더 첨단인 기술이 등장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날을 대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p>
	2	김하경 (2394010)	<p>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독서클럽 활동을 하면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책 '비밀의 언어'는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의 언어는 팀원들의 학과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책으로, 읽으면서 학과와 연관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회차에 걸친 모임은 단순히 책의 내용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연관된 내용을 토론하여 팀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얻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p>

(뒷페이지에 이어서)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3	손채민 (2394032)	<p>암호학은 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이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비밀의 언어>는 단순히 암호 기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암호와 코드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려주는 책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했던 암호학이 새롭게 느껴졌고, 암호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치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 <p>특히, 책에서 다룬 에니그마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과거 단순한 암호화 기법에서 시작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은 암호를 보며, 암호학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p> <p>지난 학기에 암호학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문제를 풀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에만 집중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그동안 암호학의 기술적 측면만 공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을 터득한 느낌이였다. 그리고 암호학이 가진 오랜 역사를 알게 되니 더 흥미로워졌다.</p> <p>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양자 암호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암호학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고전 암호에서 시작해 현대 암호를 거쳐 양자 암호로 나아가는 흐름을 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 보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졌다. 미래의 암호학이 새로운 기술과 함께 어디로 향할지 기대되었다.</p> <p>독서클럽 활동에서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암호학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걸 느끼며 더 많은 시각을 배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더 폭넓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p>또한, <비밀의 언어>는 암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준 책이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암호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p>
	4	조수빈 (2394016)	<p>대학교 수업에 집중하면서 수업 교재를 제외하고는 책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는데, 독서 클럽을 통해 책을 집중해서 읽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암호학 교수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비밀의 언어라는 책은 암호에 대한 내용을 관련 역사를 통해 비교적 알기 쉽게 풀어 쓴 내용이었다.</p> <p>그전까지는 암호가 수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공이 보안임에도 불구하고 암호를 어렵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암호가 비교적 간단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컴퓨터도 해독 못 할 정도로 복잡한 지금의 암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사건을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암호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p> <p>특히 5장에서 특정 원주민의 언어를 암호로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심지어 대화 속에서도 암호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책과 관련된 내용을 사람들과 토론해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중간중간 암호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여럿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p> <p>이 책으로 끝내지 않고 더 나아가 책과 관련된 암호 문제를 풀어보고 관련된 서적을 통해 추가로 공부해 보고 싶다.</p>